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경제활성화 모색

고조홍 국회의원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고조홍(포천·연천) 국회의원은 12월7일 연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의 사회로 고조홍 국회의원의 개회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김규배 연천군수 축사가,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손준상 교수의 '군사시설보호법 설정, 해제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태원 한국관광공사 연구위원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안보관광 가능성은 있는가'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연천군의회 김창석 의장, 경기도청 이철형 지역개발국장, 경기개발연구

원 최용환 책임연구원, 합참 유경빈 군사시설보호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고조홍 국회의원은 "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안보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경제·문화·교육적 피해와 고통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감내 해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이제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공감하게 되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비무장지대 및 군사시설



고조홍국회의원은 세미나를 개최해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등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도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린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금

연산장학회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12월8일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양주시장, 김기홍 양주시체육회장, 체육회 이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체육 우수선수에 대한 2006년도 연산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재단법인 연산장학재단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수한 학생에게 연산장학금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향후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선수로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산장학재단은 2004년도에 설립했으며 올해는 29개 학교 6개 종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

연산장학금 전달은 이종화 양주시체육회 부회장이 전달했으며, 연산장학회는 관내 레이크우드개발주식회사에서 로얄개발주식회사 건립자인 고 이연 씨의 유언에 따라 연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이익금의 1.9%를

관내 체육 특기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 받아 관내 체육 특기자 초·중·고·대학생 66명을 선정하여 초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7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을 지급했다.

임충빈 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발전을 알리는 요인은 그 지역의 체육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있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인재가 양성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최선의 노력 다할 테니 여기 참석하신 체육회 이사님들도 적극적인 동참과 열과 성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산장학재단은 12월8일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연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천54명의 졸업생 배출

연천 노인대학 졸업식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 노인대학은 12월8일 전곡읍 소재 여성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대학 수료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노인대학생은 제18기생으로 지난 4월14일부터 12월8일까지 64명의 등록 및 수료하여 졸업의 기쁨을 맞이했다.

연천군지회 연천노인대학은 1984년 2월에 초대교장 이봉래 목사가 설립하여 개교해 운영되다가 6회에 잠시 중단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1995년 노인학교로 등록 1기부터 현재까지 총 1천54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지회 연천노인대학은 1984년 2월에 초대교장 이봉래 목사가 설립하여 개교해 운영되다가 6회에 잠시 중단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1995년 노인학교로 등록 1기부터 현재까지 총 1천54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안보정세 설명회

양주시 재향군인회는 12월7일 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임충빈 양주시장을 비롯한 재향군인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정세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안보연구소 정철훈 안보교수를 초빙 최근 안보정세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 출신 장애인 펜싱 정상 등극

제9회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펜싱 금·은·동메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개최된 제9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동두천시 출신 국가대표 펜싱 선수단이 금·은·동메달을 따내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했다.

11월29일 아시아·태평양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OCM 실내경기장에서는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가 올라가자 1등 시상대 위의 휠체어를 탄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시상대 맞은편, 휠체어를 탄 한 여자 선수도 그를 보며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한국 휠체어펜싱 사상 최초로 외국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예페 개인)을 딴 김기홍(35·척수장애)씨와 함께 눈물을 흘린 여성은 그의 부인이자 이번 대회 플뢰레 개인전 동메달을 딴 이유미(26·절단장애)씨다.

또한, 장동신(31·절단장애)도 은메달(예페 개인)을 추가하였으며, 이들 3명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장동신 금4, 김기홍 금4, 이유미 금3을 따내는 등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 국제대회에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장애인 펜싱은 휠체어를 고정하고 발동작 없이 몸의 움직임만으로 겨룬다.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팔 동작이 빨라야 한다.

이들은 앞으로도 더욱 실력을 연마하여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개최된 제9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동두천시 출신 국가대표 펜싱 선수단이 금·은·동메달을 따내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했다.

11월29일 아시아·태평양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OCM 실내경기장에서는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가 올라가자 1등 시상대 위의 휠체어를 탄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시상대 맞은편, 휠체어를 탄 한 여자 선수도 그를 보며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한국 휠체어펜싱 사상 최초로 외국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예페 개인)을 딴 김기홍(35·척수장애)씨와 함께 눈물을 흘린 여성은 그의 부인이자 이번 대회 플뢰레 개인전 동메달을 딴 이유미(26·절단장애)씨다.

또한, 장동신(31·절단장애)도 은메달(예페 개인)을 추가하였으며, 이들 3명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장동신 금4, 김기홍 금4, 이유미 금3을 따내는 등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 국제대회에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장애인 펜싱은 휠체어를 고정하고 발동작 없이 몸의 움직임만으로 겨룬다.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팔 동작이 빨라야 한다.

이들은 앞으로도 더욱 실력을 연마하여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 여성합창단은 12월7일 군민회관에서 육군 제5보병사단 군악대 연주 협찬으로 제2회 연천여성합창단 연주회를 실시했다.

가슴속 울리는 하모니 향연

연천 여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연천군 여성합창단(단장 김순희)은 12월7일 군민회관에서 육군 제5보병사단 군악대 연주 협찬으로 제2회 연천여성합창단 연주회를 실시했다.

연천여성합창단은 지난해 구성되어 첫 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올해 3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엄동철한테 가슴속을 울리는 하모니 향연 속에 차가운 겨울밤을 녹여줄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정취를 느끼며 뜻 깊은 한해를 마무리를 기원하기 위해 준비한 연주회는 제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합창 단장의 인사 및 내빈 소개에 이어 김규배 군수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우리민요들 3곡이 연주해실과 지휘에 따라 선율을 울리는 합창에 이어 연천하모니 연주, 세계의 민요·명곡의 합창, 제5보병사단 군악대 연주, 추억의 팝송·가요·애창곡 합창의 열연으로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연주회에는 김규배 군수를 비롯해 김창석 연천군의회위원장 및 의원, 각급기관장, 지역유지, 주민 등 500여명 등 많은 관람객들이 정기연주회를 관람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 여성합창단(단장 김순희)은 12월7일 군민회관에서 육군 제5보병사단 군악대 연주 협찬으로 제2회 연천여성합창단 연주회를 실시했다.

연천여성합창단은 지난해 구성되어 첫 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올해 3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엄동철한테 가슴속을 울리는 하모니 향연 속에 차가운 겨울밤을 녹여줄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정취를 느끼며 뜻 깊은 한해를 마무리를 기원하기 위해 준비한 연주회는 제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합창 단장의 인사 및 내빈 소개에 이어 김규배 군수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우리민요들 3곡이 연주해실과 지휘에 따라 선율을 울리는 합창에 이어 연천하모니 연주, 세계의 민요·명곡의 합창, 제5보병사단 군악대 연주, 추억의 팝송·가요·애창곡 합창의 열연으로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연주회에는 김규배 군수를 비롯해 김창석 연천군의회위원장 및 의원, 각급기관장, 지역유지, 주민 등 500여명 등 많은 관람객들이 정기연주회를 관람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시 생연2동 백종범 동장 명예퇴임



동두천시 생연2동 백종범 동장(사진)의 명예퇴임식이 12월4일 오후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백종범 동장은 1969년 양주군 남면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1981년 동두천시로 전입하여 37여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시대적 사명감과 변함 없는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 일해 왔다.

백 동장은 1993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환경보호과장, 생연4동장, 문화공보실장, 불현동장, 공원녹지과장, 생연2동장 등 지방행정 전 분야를 고루 거치시는 동안 탁월한 업무추진력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다가 4일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되었다.

백 동장은 또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아발전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북 최고의 자동차 학원 우리고장 포천에!

- 학원에서 운전면허증 바로 취득
- 최고의 강사진으로 운영
- 어린이 놀이방 운영
- 셔틀차량 운영



회장 강수동





원장 강승모

대표전화: 031-542-2900, 1588-2977
(의정부 경기도 제2청사에서 5분)
www.gdts.co.kr

그린자동차학원